

# 오솔길 끝에서 만난 작은 절집 이보다 시원할 순 없다

**초** 폭빛 청량한 날갯짓이 이끄는 길의 끝에서 만난 작은 절집. 한여름을 향해 거듭 드세지는 녹음 속에서도 북적거리지 않는 작은 계곡과 오솔길이 펼쳐진다. 그곳에서 끝없이 '나'를 묻는 내내 서두름 없는 발걸음을 좇다 보니, 폭염처럼 들끓던 마음마저 무색해진다. 그럴 땐 템플스테이도 좋은 휴식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 외국인들조차 심신을 위한 안 받고 활력을 충전하기 위해 산사를 찾는다. 명상과 휴식, 다도, 특별한 체험이 있는 절집으로 여행을 떠난다. 아담한 계곡으로, 울창한 숲길과 폭포가 쏟아지는 피안으로 가는 피서. 여름에 가면 더 좋은 산사를 꼭 짚어 소개한다.

글 · 사진 유철상(여행작가, 월간KAB-ROAD) 편집장

## 냉장고 보다 시원한 피서지, 밀양 표충사와 얼음골



울창한 송림속 표충사 전경.

는 모양새가 유교와 불교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임을 말해준다. 표충사 주위는 송림이 울창하다. 석담과 사우들도 정갈하다. 특히 유품전사관을 두고 해마다 향사를 지내는 등 사명대사의 호국성지로 유명하다. 경내에 있는 영정약수는 신라 흥덕왕의 셋째 아들이 이 물을 마시고 나병이 나았다는 전설이 전할 정도로 좋은 물이다. 표충사에서 지척거리에 있는 얼음골도 필수 코스. 밀양의 재약산(천황산) 북쪽 중턱의 골짜기 3천 여 평을 얼음골이라고 한다. 계곡입구에 들어서면 냉장고 속에 들어간 듯 시원한 얼음바람을 맞볼 수 있다.

DATA: 문의 055-352-1070, www.pyochungsa.or.kr  
▶경부고속도로 연양(10)에서 나와 24면 국도 타고 가다 석남터널 지나 20분 정도 가면 표충사. 표충사 앞 검문소에 서 좌회전하면 얼음골 입구. 얼음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2km 더 가면 얼음골 주차장.

**산** 이 많아서일까? 밀양에는 유난히 절이 많다. 많은 절 중에서도 둘러볼 만한 곳은 역시 표충사다. 호국성사를 기리는 표충사당과 고찰이 함께 공존하

## 마음까지 시원~트레킹 템플스테이, 부안 내소사



내소사 직소폭포가는길의 트레킹.

직소폭포는 30m 높이에서 물줄기가 소를 향해 내달린다. 푸른 소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폭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으며, 직소폭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다. 직소폭포까지 오르는 계곡 길은 경사가 험하지만 내려오는 길은 완만하다. 서해바다 가 보이는 관음봉으로 내려오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3시간 정도 호젓한 자연에 취할 수 있는 트레킹은 참가자 100% 만족하는 코스다. 내소사 트레킹 템플스테이는 짧은 시간의 여행만으로도 큰 율리와 긴 여운을 간직할 수 있는 곳이다. 몸과 마음의 평화로움을 누리고 직접 체험하면 그만큼 산사 여행의 즐거움도 커진다.

DATA: 문의 내소사 063-583-7281, www.naesosa.pe.kr  
▶서해안고속도로 줄포(10)로 나와 우회전하면 영전 삼거리. 여기서 좌회전하면 골소항이 나온다. 격포 방향 석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내소사 입구 주차장.

**내** 소사 템플스테이의 하이라이트인 트레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트레킹은 내소사에서 직소폭포까지 1시간 정도 계곡길을 따라 오르는 코스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직소폭포의 웅장한 물소리가 들린다.

## 파도치는 갯바위 절서 소원 빌어볼까? 가장 용궁사



앞마당이 바다로 펼쳐지는 용궁사.

는 곳으로 유명하다. 갯바위의 허얇게 부서지는 포말에서 '희망'을 보기도 하고, 수평선 너머로 떠오른 붉은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다짐을 굳히기도 한다. 앞마당이 망망대해인 용궁사는 그 외형에서부터 다른 사찰과 분위기가 다르다. 108계단을 딛고 내려가 바다 위에 걸친 다리를 걸어가다 보면 마치 용궁 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용궁사 주변에는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과 맛집이 몰려 있다. 송정해수욕장이 지역에 있어 해수욕을 즐겨도 좋고 윈드서핑이나 바나나보트 등 산사는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DATA: 문의 용궁사 총무소 051-722-7744, www.yongkungsa.or.kr  
▶경부고속도로 구서(10)에서 도시고속도로로 갈아탄 후 해운대로 빠져나와, 송정해수욕장을 거쳐 2.7km 더 가면 용궁사.

**한** 여름 바닷가의 절은 산사(山寺)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경남 가장 큰 용궁사는 진심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꼭 현몽을 받고 소원을 이룰 수 있



눈이 시리고 가슴이 시원 강천계곡.

어지고 기암괴석이 가득 찬 비경을 감상하고 나면 유명 여행지보다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게 된다. 굽이굽이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강천계곡에 둘러싸인 강천사는 고려시대에는 천여 명의 승려가 머물던 큰절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몇 명의 비구니 스님이 절을 지키고 있다. 강천산은 등산보다는 긴 계곡을 따라 왕복 2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찾으면 더욱 좋다. 특히 산길 곳곳에 놓인 벤치는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구름다리까지 가는 길은 행복한 산책길. 맨발산행을 즐길 수 있는 황토길이 뒹여 있고 길옆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작지만 아름답고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DATA: 문의 강천사 063-662-5420, www.sunchang.co.kr  
▶88고속도로 순창(10)에서 나와 순창읍내에서 담양 방면. 순창 고추장마을 삼거리에서 우회전. 자양리 삼거리에서 다시 우회전 하면 강천산군립공원.

**강** 시원한 맨발산행 길과 계곡을 품은 순창 강천사 천산 군립공원은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강천산의 계곡을 따라 등산로가 이



시원한 물줄기가 한여름의 더위를 씻어주는 밀양얼음계곡.

중국명차 보이차 각종다구 전문판매(도·소매)

## [香茶園]

**20여년을 茶道 문화 보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향다원은 전통 차 저장방법으로 남한강변 산속에 저장 보관합니다. 향다원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 이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다원은 전통차예절(茶道)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시 · 교육장 : 경기 이천시 사음동 470-2호 전화 031)634-1329 | 팩스 031)631-1329 | 핸드폰 011-474-1345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영등으로 법화와 불공기도를 올릴 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음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회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 성취하십시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암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 1189  
www.ssalbawi.com (또는, 한글로 미암)

**세계 최대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대층 탑인, 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썰바위 전설**  
(중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썰고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썰바위)이라 불렀으며, 바위에서 원적의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